

“암환자별 맞춤치료 등 첨단의료 혁신 선도하겠다”



인터뷰

정신 화순전남대학교병원장

지난해 연말 취임한 정신 원장이 화순전남대병원의 새로운 도약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 뇌종양 분야 명의로서, 진료·수술·연구·후진양성으로도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대한뇌종양학회 회장으로서 전국적인 보폭도 넓혀나가고 있다.

취임 이후 그의 업무 스타일을 지켜본 직원들은 ‘소탈한 카리스마’, ‘소통의 리더십’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신 원장을 만나 화순전남대병원의 미래 구상과 포부를 들어왔다.

◇취임 후 역점을 둔 사항은

“화순전남대병원은 단기간에 ‘글로벌 암특화병원’이라는 명성을 얻어 ‘한국 의료계의 성공신화’로 불리고 있다.

이러한 성취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전방향 모색, 환자안전과 소통 증대, 직원들의 자부심 증진을 통한 ‘행복한 병원’ 만들기 등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2월 병원의 보직자들과 함께 ‘리더스 워크숍’을 열고, 2004년 개원 이후 병원의 발전상과 미래 청사진에 관해 집중논의했다. 29개 진료과의 부처장과 수간호사, 팀장급 이상 관리자 등 120여명이 참가해 첨단의료로 선도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구성원들간 비전 공유와 공감대 형성에 큰 도움이 된 자리였다.

환자의 안전과 고객의 행복은 무엇보다 우선되는 가치다. 환자안전과 관련된 사건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직원들과 개선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직원들의 긍정적인 마인드와 열정, 단합력은 큰 자산이다. 자부심 증진과 원활한 소통협력이 이뤄지도록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

제2의 도약 위한 ‘리브랜딩’ 역점 면역 치료·스마트 서비스 등 강화

◇화순전남대병원의 운영방향은

“개원 이후 지속적으로 환자경영 기조는 유지되고 있지만, 외형적 성장은 수년째 정체기로 접어들었다.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발전은 물론 격높은 의료서비스를 바탕으로 한 ‘제2의 도약’이 절실한 시점이다.

첨단 선진의료의 주역이 되기 위한 ‘리브랜딩(re-branding)’에 협을 계획이다. 환자별 맞춤치료를 구현하는 정밀의료와 IT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서비스, 정밀의학센터 운영, 복합면역치료 등 첨단 의료시스템을 구축하는 혁신에 역점을 두고 있다. 진료 프로세스도 개선해 더욱 효율적이고 신속한 치료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특히 국내에서 유일한 화순백신폭구의 중심점으로서, 국가적 신성장동력인 생물의약산업의 토대도 더욱 탄실해 키워나가려 한다. 여기에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소외지대를 위한 ‘여미사랑 봉사단’의 활성화와 지역민의 암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병행해나가려 한다.

◇병원의 발전을 위한 역점시책은

“국내 최고수준의 의료경쟁력을 갖기 위해 힘쓰고 있다. 소화기센터와 암면역치료 클리닉 개설, 폐적한 진료환경 조성, 우수인력 확보, 국내외 협력병원 네트

워크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원내 주차공간 환자 우선배려, 구내식당 만족도 향상 등 고객만족을 위한 세부방안도 추진 중이다. 10만 여명에 달하는 지역내 암생존자를 위한 통합지지센터·평생건강클리닉의 활성화도 주요과제다.

진료 외에 부가가치 높은 생명과학 분야의 신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산업화하는 일도 중요하다. 원내 부지에 ‘의생명혁신센터’ 건립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구 역량을 강화해 의생명 원천기술을 발굴하고 산업화하고자 한다. 해외 우수 연구기관인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지난 6년간의 공동연구 결과, 독일측으로부터 국내 거점연구소가 될 프로젝트 센터 위치를 제안받기도 했다. 세계적 암전문병원으로서의 기능 확충과 연구중심병원으로서의 기반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전남대 의과대학 캠퍼스 이전 후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데.

“병원 옆으로 전남대 의과대학 이전이 추진돼, 지난 2013년 의생명과학융합센터가 준공된 데 이어 지난 2015년 기초의학 10개 교실, 교수·연구원 등 150여명이 이전을 완료했다. 올해 말 생활관이 완공되면 내년 초 500여명의 학생들이 화순캠퍼스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남대 의과대학 캠퍼스 활성화에 발맞춰, 진료·연구·교육분야의 비약적인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의대와 연계, 미래를 위한 의료인재 육성교육과 연구역량 증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화순전남대병원의 비전은 ‘세계 최고수준의 전문 의료센터’가 되는 것이다. 혁신과 소통협력을 이끌어 ‘세계일류병원’이 되기 위한 기반을 다져나갈 것이다. 국가적인 의료발전과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병원으로서 소임을 다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오송지 기자 ohssji@kjdaily.com

‘글로벌 백신 허브’ 호남 신성장동력 일군다

국내 유일 화순백신폭구내 핵심 역할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협력 촉진

화순전남대병원은 화순백신폭구와 연계, 국가적인 미래성장동력을 견인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남도지사를 지낼 당시 “전남의 미래는 바이오 생명산업으로 요약할 수 있고, 그 동력은 화순”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화순전남대병원은 화순군과 손을 맞잡고, 4차산업혁명시대의 신성장동력인 생물의약·백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학·연·병·관 협력 네트워크 강화와 관련 산업 집적화(클러스터)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화순백신산업특구는 2010년 11월 산업부에서 지정한 국내 유일의 백신특구다. 신종플루나 메르스 사태·지카 바이러스 등으로 감염병에 대한 전세계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정부에서는 ‘세계 5대 백신강국’을 목표로 적극적인 육성·지지를 보이고 있다. 전남도와 화순군은 2016년부터 ‘국제백신포럼’을 매년 화순에서 개최, 국내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백신폭구내에 임상백신사업단이 있는 화순전남대병원, 세계 12번째로 독감백신의 자급자족을 이룬 녹십자 화순공장, 국내개발 백신의 절반 이상의 임상시료를 생산한 전남생물의약연구센터, 백신 등 의약품의 전임상시설을 갖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헬스케어연구소 등이 자리잡고 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국내 최고수준인 화순 백신단지과 연계,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의 중심역할을 맡아 신성장동력을

견인하고 있다. 화순전남대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메디컬 클러스터’는 진단과 치료, 의료 전문인력 양성을 맡고 있으며, 특히 암연구와 진료에서 선도적 역할을 맡고 있다. 암 등 난치병의 효율적인 치료법을 연구 중인 여러 실험실·연구소·사업단이 참여하고 있다. 화순군은 생물의약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화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는 의약품 연구개발에서 제조에 이르는 전 과정이 특구내에서 가능토록 수준높은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 화순전남대병원이 연구와 임상, 전남대 의생명과학융합센터가 기초연구를, 생물의약산업단지에 입주한 KTR 헬스케어연구소가 비임상을, 전남생물의약연구센터가 의약품 제조와 품질관리를, ㈜녹십자가 의약품 산업화 분야를 각각 맡고 있다.

화순전남대병원 의생명연구원은 지난 2010년부터 정기적으로 ‘바이오 메디컬 워크숍’을 개최, 유관기관과 연구자들간 활발한 소통을 이끌어내며 상생협력 네트워크의 중심점 역할을 해내고 있다.

한편, 화순전남대병원의 성공에 힘입어 지역 브랜드도 덩달아 상승하고 있다. 지역민들은 “화순이 이처럼 유명해진 건 유사 이래 처음일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식당과 편의시설 등 지역상권도 덩달아 살아나고 있다. 군내에 요양병원 등 1·2차병원과 주거요양시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노동집약형인 의료산업의 특성상 지역민 일자리 창출에도 한몫하고 있다. 광주·전남 130여곳 협력병원들과 손잡고 상생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화순전남대병원의 성공은 지역 활성화의 좋은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오송지 기자 ohssji@kjdaily.com



지역내 의료소외지대 돌보는 ‘찾아가는 진료’.

의료취약지대 돌보는 ‘나눔의료’ 활발

‘찾아가는 진료’ 등 공공의료 충실 소외이웃 지원…교육기부도 풍성

화순전남대병원은 의료봉사과 기부활동 등 공공의료활동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농어촌 의료소외지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료’는 물론 수시로 건강강좌 등을 열어 지역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병원내 자리잡은 전남지역암센터에서는 보건소, 의료기관 등과 연계해 실무자교육은 물론 암 예방·치료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최근 지역 내 4천여명의 고령인들에 대한 의료지원을 위해 진료협약을 체결했다. 딱한 사연을 가진 해외환자들을 위해 나눔의료를 펼치는 등 글로벌 병원으로서의 역할도 적극 수행하고 있다.

병원 임직원들은 어려운 형편의 아동들을 돕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손잡고 ‘한끼의 행복한 나눔’ 캠페인을 펼쳐, 매년 후원금을 기부하고 있다. 어린이재단은 이 후원금으로 어린이 환자와 결식아동들을 돕고, 이혼 등 가정해체로 인해 어린 손자들을 돌보는 저소득층 조손가정을 지원하고 있다.

병원 임직원들이 물품을 모아 ‘아름다운 나눔장터’를 운영해 지역내 소외이웃을 지원하고 있으며, 개인후원자와 민간단체로부터 후원을 받아 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을 치료해 주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아동센터의 저소득가정 어린이·청소년들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의료봉사도 적극 펼치고 있다.



‘고려인마을’과 의료지원을 위한 진료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말기암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간병비, 장례비, 유가족 장학금 등을 위한 기부 장려활동도 활발하다.

병원 내 12개 봉사단체를 통합한 ‘여미사랑봉사단’을 비롯, 각 부서별 불우이웃 돕기 활동도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특히 간호사들은 봉사단체를 결성, 사회복지법인과 요양원 등을 방문해 치매·중풍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의 수발과 운동보조, 청소 등을 수년째 해오고 있다. 기금을 모아 생활필수품도 수시로 지원하고 있다.

교육기부활동도 늘려가고 있다.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생명존중체험을 위한 심폐소생술교육과 병원내 자원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소아암·백혈병·희귀난치병으로 투병중인 환아와 가족들을 위한 각종 캠프를 운영, 나눌 수 있는 희망과 함께 사회와의 소통에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지역에선 유일하게 병원 내 ‘여미사랑 병원학교’를 운영, 입원치료를 장기간 수업을 받지 못하는 환아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각종 치유 프로그램도 가능하고 있다.

/오송지 기자 ohssji@kjdaily.com



화순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